

불확실성의 시대에서의 위험관리

Adaptiv 360은 국민은행이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여 사업을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감독당국과 금융서비스 회사의 고위경영진들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미래에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관리 지침과 통제를 강화하였고, 규정을 국제 기준에 더욱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상업은행들에게 위험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민은행 리스크관리부 팀장인 김도한씨는 이러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2008년의 금융위기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재정위기와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관련 문제와 같은 위험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당분간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기초를 유지할 것입니다”라고 김도한씨는 말합니다.

지난 10년간 (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국민은행은 거래파악 및 리스크/오퍼레이션 관리를 위해 선가드의 Adaptiv 360 통합 플랫폼을 사용해 왔습니다.

김도한 (Mr. Dohan Kim)

국민은행 리스크관리부 팀장 (team head, Risk Management Department, Kookmin Bank)

1963년에 설립된 국민은행은 고객 수와 자산규모 양면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상업은행입니다. 또한 국민은행은 국내 모든 은행들 중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최대의 은행입니다.



애초에 소매은행으로 출발한 국민은행은 2001년 주택은행과의 합병 등과 같은 인수합병을 통해 증권, 신용카드 및 기타 금융사업분야로 다변화해왔습니다. 국민은행은 중국, 미국, 일본과 기타 국가에 현지법인 또는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금융위기 훨씬 전부터) 국민은행은 거래파악 및 리스크/오퍼레이션 관리를 위해 선가드의 Adaptiv 360 통합 플랫폼을 사용해 왔습니다. 리스크관리와 규제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은행의 노력에 있어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라고 김도한씨는 말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리스크관리

“금융위기 이후 국민은행은 신상품 승인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신상품이 개발되면 반드시 리스크관리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Adaptiv 360은 국민은행의 리스크관리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래 파악 및 리스크/오퍼레이션 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서, Adaptiv 360은 실시간으로 자산군 전체의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트레이드 스토어와 최상의 리스크 관리 및 오퍼레이션 도구를 통합한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뿐 아니라 장외 파생상품과 구조화 상품을 모두 지원합니다.

국민은행은 하루 평균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김도한씨에 의하면, daptiv 360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은행은 매우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Adaptiv 360을 기반으로 국민은행이 만든 내부모델이 은행의 실적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은행의 신상품을 평가할 때에도 Adaptiv 360(Deal+)을 이용해서 자체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김도한씨는 말합니다.

또한,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를 얻도록 지원해주는 등 Adaptiv 360은 유용한 분석 도구로도 사용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Adaptiv 360의 통합성 또한 장점입니다. “적절한 리스크관리는 측정 뿐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또한 리스크 대비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은행들이 실질적인 리스크관리 활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Adaptiv 360은 국민은행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Adaptiv 360을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의 금융 지식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업무가 매우 체계화되었고 업무능력도 향상되었다고 직원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라고 김도한씨는 설명합니다.

새로운 규제와 감독의 관리 이외에도, 국민은행은 사업확장을 위한 야심만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이머징마켓 국가들에 진출함으로써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의 추세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국내 최대의 고객 수 및 폭넓은 영업망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아시아 금융을 선도하는 글로벌 상위 50위 이내의 은행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김도한씨는 말합니다.

국민은행의 전세계적인 포부에도 불구하고, 김도한씨는 사업확장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해 유념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시장으로의 진출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의 성장에 적절한 리스크관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기관 자산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김도한씨는 말합니다.

한국은 2009년의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국제금융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김도한씨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합니다”라고 김도한씨는 말합니다. 국민은행에서의 그의 경험에 의하면, 그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리스크관리가 필수입니다.

“Adaptiv 360은 지난 10년간 당행 사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으며, 당행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함에 있어 이에 계속 의존하고 있습니다”라고 김도한씨는 덧붙여 말합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선가드에 연락하시거나
adaptiv.marketing@sungard.com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ungard.com/enterpriserisk/kr